교육부, 중소학교 학생 종이책 열독 격려

청소년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고 좋은 책을 읽으며 독서를 잘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일전에 '경전을 읽고 생각하기'(读经典 我思考) 활동을 가동하여 중소학생들이 중화경전 저작을 열독하도록 창도하고 종이책 열독을 강화하며 부동한 지역의 중소학생들이 필우, 책친구 등 방식으로 독서 심득을 교류하도록 격려했다.

중소학교 각 학년은 매 학기 적어도 하나의 경전 주제 독서활동을 진행하여 중소학생들이 중국 전통경전, 홍색경전, 대중과학경전과 같은 다양한 경전책을 읽도록 지도하며 종이책 읽기를 강화해야 한다. 각 지역과 학교는 다양한 독서 공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학생들의 독서 결과를 보여주며 독서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독서 공유 플래트홈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글쓰기 인식, 마인드맵, 그림, 교과서 등 형식의 독서 사고를 공유하도록 장려하며 중소학교 교원은 경전 독서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각 지역의 학교는 박물관, 문화관, 과학기술관, 애국교양기지, 다양한 연학기지와 협력하여 유연하고도 다양한 '독서수업'을 수행하고 책의 '작은 세계'와 사회의 '큰 교실'을 련결시켜 청소년들이 독서와 행동의 통합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육부는 여러 중소학교들에서 농촌지역, 민족지역 및 변경지역의 중소학교들과 련계를 맺고 책을 기증해 부동한 지역의 중소학생들이 필우, 책친구 등 방식을 통하여 독후감을 교환하는 것을 격려한다. 중소학교들에서는 도서 교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도서 리용률을 높이고 학생들의 독서 열정을 자극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지혜교육 독서 플래트홈에 의탁하여 중소학교 독서 공유 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중소학교 사생들이 플래트홈에서 경전작품, 독서지도 자원과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권장하며 각 학교들에서 '독서의 달인'을 선정하는 등 방식으로 독서 공유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을 권장한다.

/ 인민넷

《프랑스문학고전문집》 출간

중국과 프랑스 수교 60돐을 기념해 작가출판사에서 출판한 《프랑스문학고전문집》이 일전 북경에서 발행되였다.

문집은 총 20종의 도서를 첫진으로 선보였는데 《빠리노뜨르담》, 《적과 흑》, 《고리오령감》, 《해저 2만리》, 《곤충기》, 《어린 왕자》 등 다양한 쟝르의 문학고전이 포함된다.

작가출판사 사장인 포견은 개방성 도서 시리즈인 문집은 대표적인 저작을 선정했는데 루쏘, 볼테르, 빅토르 위고, 발자크, 스탕달, 모파쌍, 로만 롤랑, 까뮈 등 문학거장의 작품이 포함된다고 소개하면서 프랑스 문학을 료해하는 창구를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중국작가협회 부주석 구화동은 "프랑스 문학은 세계문학 보물고중의 '보물'로 유구한 력사와 두터운 저력으로 인류의 정신세계를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한세대 또 한세대의 중국 독자를 포함한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문집을 통해 우리 나라 독자들이 프랑스 문화를 더 잘 리해하고 중국과 프랑스 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표했다.

/ 신화넷

'읽는 게 싫어질 때'… 힘이 되는 독서 명언

◎ 약으로 병을 고치듯이 독서로 마음을 다스린다. - 카이사르

◎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은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며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 베이컨

◎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 - 리처드 스틸

◎ 책을 백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통해진다. - 위략

◎ 나는 뜻밖에 갖게 되는 1분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언제나 작은 책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잊지 않았다. - 윌리엄 글래드스턴

◎ 남의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남이 고생한 것에 비해 쉽게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 소크라테스

◎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였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 빌 게이츠

◎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자료를 공급할 뿐이며 그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 존 로크

◎ 무엇이거나 좋은 책을 사라. 사서 방에 쌓아두면 독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외면적인 것이긴 하나 이것이 중요하다. - 베네트

◎ 한문장씩 매일 조금이라도 읽겠다고 결심하라. 하루 15분씩 시간을 만들면 년말에는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 호레이스 맨

/ 종합

꼬마독자들이 즐겨 찾는 사회구역 도서관

여름방학이 시작된 후 안도현 장흥가두 토월사회구역 도서관은 책 보러 찾아오는 꼬마독자들이 늘고 있다.

도서관에는 친자활동구역과 쏘파열독구역, 홍색열람구역 및 소년아동보도열람실 등 여러가지 구역이 설치되여 꼬마독자들에게 편리한 열독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료해에 따르면 토월사회구역 도서관은 중국아동소년기금회의 대폭적인 지지하에 안도현부련회, 안도현도서관, 공청단안도현위 등 여러 단위들이 손잡고 건설한 것인데 풍부한 장서 자원을 지원받았다. 도서관에는 정품 고적과 력사이야기, 아동문학 등 여러 종류의 서적이 2,000여권 비치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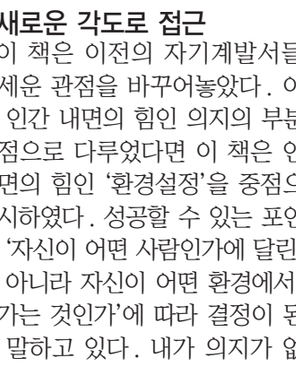
토월사회구역에서는 도서관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하여 선후로 독서공유 행사와 부모와 함께하는 열독행사 등 100여차의 독서 행사들을 활발히 조직하였다.

/ 안도발부

독서노트

◎ 리행화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고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이 책이 최고의 코치가 되여줄 것이다."

표지에 나오는 작가 팀페리스의 말이다. '타이탄'이란 '거인'이라는 뜻으로 각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말한다. 이 책은 세계 최정상에 오른 '타이탄'이 밝힌 성공의 비밀에 관한 자기계발서이다.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을 만났고 이 책에 그들과 벌였던 열띤 토론과 그들이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매일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썼다.

새로운 각도로 접근

이 책은 이전의 자기계발서들이 내세운 관점을 바꾸어놓았다. 이전엔 인간 내면의 힘인 의지의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었다면 이 책은 인간 외면의 힘인 '환경설정'을 중점으로 제시하였다.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의지가 없는 못난 사람이라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어떤 시점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책이기도 하다.

기존의 틀을 바꾸다 : 평범한 사람이 천재와 싸워서 이기는 법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자신이 있는 분야에서 상위 1% 안에는 들어야 한다. 즉 극소수의 최고의 사람들만이 성공한다. 하지만 그렇게 성공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어린 시기부터 꾸준히 준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상위 2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분야가 적어도 두개 정도는 있다. 이 두가지 재능을 찾아내고 잘 개발하면 천재도 이길 수 있다."

저자는 스콧 애덤스라는 만화작가와 인터뷰를 했다. 스콧 애덤스의 만화 《딜버트》는 57개 나라, 2,000개 신문에 련재되고 있다.

스콧 애덤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만화인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하지만 피카소나 고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나는 코미디언들보다 웃기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유머 감각이 뛰여난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림을 잘 그리면서 웃긴 얘기도 잘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조합된 덕분에 내 만화작업은 매우 평범하지 않은 진기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업경험까지 추가하면 놀랍게도 나는 세상에서 매우 찾기 힘든 만화가입니다."

스콧 애덤스가 거창하고 특별한 기술을 련마해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 대신 적당한 그림 재능과 적당한 유머 코드 등 두가지 이상이 결합되여 그를 소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전세계 인스타그램 팔로워수 1위부터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블랙핑크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존의 가수들은 노래만 잘하면 성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패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블랙핑크는 현재 샤넬, 디올, 입생로랑, 블가리, 셀린 등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의 뮤즈로 활동하고 있다. 두가지 이상의 괜찮은 능력을 결합해서 어떻게든 자신을 진귀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 능력을 더 결합할 때마다 성공 확률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준다.

나의 하루를 '환경설정'하라

이 책에서는 주요하게 아침 계획을 소개했다. 하루의 최소한 1시간이 그 이후의 12시간을 좌우한다고 한다. 하루에 12시간을 의도한 대로 보낼 수 있고 그런 12시간이 하루하루 쌓인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가.

작가는 다섯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잠자리를 정리하라. 둘째, 명상을 하라. 셋째, 한 동작을 5~10회 반복하라. 례하면 팔 굽혀 펴기, 허리 돌리기, 내 몸을 풀어주기 등이다. 넷째, 따뜻한 차를 마셔라. 례하면 보이차, 룡정차 등이다. 다섯째, 세가지 질문을 가지고 아침 일기를 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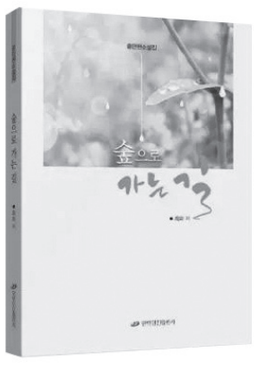
하루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인간은 감정동물이라 기분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하루 계획을 정하면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완수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이 책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객관적인 환경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것에 맞는 자신의 생활과 삶에 대한 '환경설정'을 먼저 하라고 한다.

환경과 상황이 자신을 힘들게 할 때 자신에 맞는 문제 해결법으로 자신의 환경을 설정하기를 바란다.

새책소개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은 소설가 최화의 중단편소설집으로 단편소설 3편, 중편소설 5편이 수록되였다. 주로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도시와 바쁜 일상을 중심으로 일반 도시인의 삶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치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특히 젊은이들의 고민과 좌절, 분투와 희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사회와 개인, 젊은이와 부모 세대간의 갈등과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의 본질, 선악의 선택을 탐구하였다. 소설은 삶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희망의 숲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다양한 시각으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소설가 최화(필명 작도)는 2018년 《연변문학》에 소설 〈빈집〉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으며 중단편소설 다수를 발표했다. 그는 《민족문학》 년도상, 《연변문학》문학상(신인상, 소설본상), 중국조선족청년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설가 최화는 중국작가협회 회원, 연변작가협회 회원이며 로신문학원 중청년고급작가연수반 42기를 수료했다.

/ 연변인민출판사